

최근 비구니 승단의 성장에 대한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비구니를 주제로 한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 학술세미나,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 등 국제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조계종의 경우 전체

스님(2003년 3월 현재)은 모두 1만2233명, 비구 4550명, 비구니 4512명, 사미 1874명, 사미니 1357명으로 비구니의 수적 비중이 상당하다. 이제 비구니는 승단 발전의 한축으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구니 승단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사미니 강원 현황을 짚어 본다.

조계종 사미니 강원의 현황

비구니승단 발전의 모태

■사미니 강원의 현황

현재 사미니 강원에는 동학사·봉녕사·운문사·청암사·삼선승가대학 등 5곳에 600여명의 학인이 수학하고 있다. 강사 등 교육원에 등록된 교직자는 22명이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의 승려기본교육기관 가운데 사미니들이 수학하는 강원은 14곳이지만 사미니 강원은 5곳에 불과하다. 지

1956년 비구니 강원 첫 설립

난해 행자교육원을 마친 여행자는 160여명. 강원 5곳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때문에 아직도 사미니 강원엔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는 사미니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입학부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명성 스님, 묘엄 스님, 묘순 스님, 일초 스님, 지형 스님

동학사 강원(강주 일초)은 불교정화기 시작되던 무렵인 1956년 주지 대현 스님이 경봉 스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강원을 개설한 것이 시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문강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근대적 개념의 강원엔 세워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현재 130여명의 학인이 정진중이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졸업 동문 대부분이 수행, 포교, 교육 일선에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운문사 강원(강주 명성)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승가 교육기관. 1958년 통도사 강주 해륜 스님을 강주로 모시고 강당을 개설한 것이 강원 시작이다. 1970년부터 명성 스님이 강주를 맡으면서 300여 대중에 수행하는 대가람이 됐다. 올해 4회 졸업생을 배출한 전문교육기관 운문승가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초의 비구니 총



사미니 강원은 교과나 학제가 매우 엄격하다. 학인들은 차문·사집·사교·대교 4년동안 고승들의 어록과 화엄경 등 교학을 공부한다. 사진은 동학사 강원 강의하는 모습.

립을 준비하고 있다.

봉녕사 강원(강주 묘엄)은 1975년 묘엄 스님을 강사로 승가학원을 설립하고 1983년 육화당을 신축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곳 2회 졸업생인 조계종 전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지금은 반듯한 도심 생활이 됐지만 개원초기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오지에 몰초자 귀해 학인들의 고생이 무척 심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100여 학인이 수학중인 봉녕사 강원은 기본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필수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묘엄 스님의 지도로 비구니 계단 유일의 '금강유원'을 운영하고 있다.

는 등 사격을 정비하는 불사가 한창이다.

삼선 강원(강주 묘순)은 1978년 의정부 약수선원에서 지광 스님과 강사 묘순 스님이 선원 수행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동국대 재학생인 탓에 상주강원을 가지 못하는 스님들을 모아 통합 강원인 '주립강원'을 개설한 것이 시초다. 1979년 강원 설립과 통합의 편리성을 위해 서울 동소문동으로 이전하면서 삼선강원으로 개명했다. 통합강원이라고는 하지만 학사관리는 일반 강원 보다 더욱 엄격하다. 현재 40여명의 학인이 수학하고 있으며 도심포교원면서 교육기관이라는 장점을 특성화시킨 강원이다.

강택의 큰 줄기는 '남진용 북한영'으로 불렸던, 한영정호(漢永鼎鑄)스님과 진응해(震應慧燦) 스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한영 스님은 1926년 개운사 대원암에 불교전문강원을 개설, 학인들을 제정하면서 운허용하(運虛龍夏), 고봉태수(高峰泰秀), 성능복문(性能福文) 스님 등에게 강택을 이어주었다.

한영-운허 스님 강택 전수

이어 운허 스님이 비구니로는 처음으로 1956년 동학사에서 봉녕사 강원 강주 묘엄 스님에게 강택을 전했다. 당시 비구니에게 강택을 전하는 것은 승단 내에서도 상당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같은 시기 고봉 스님은 비구니 명륜, 일원 스님에게, 성능 복문 스님이 법계명성, 보월 스님 등에게 강택을 전했다. 이들 스님은 근대 비구니 강택의 사실상 1세대들이다. 이후 현재와 같은 현대적 강원 체제가 확립되면서 1970년대 이후 종단의 정규 교육을 이수한 제자들이 강택을 전해 받고 있다.

삼선강원 강주 묘순 스님은 1974년 용인 화운사에서 대은소하(大隱素荷) 스님으로부터 강택을 이었다. 동학사 강주 일초 스님은 1977년 호경기환(湖鏡基煥) 스님으로부터 강택을 이어 받아 1986년부터 동학사 강주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가산지관(伽山智冠) 스님의 강택을 이어받은 지형스님은 학문의 기초를 세운다는 이립(而立·30세)의 나이에 1982년 화운사 강원 강주로 취임한 후 1987년에는 청암사 강원을 다시 열었다.

한편, 올 1월에는 운문사 명성스님으로부터 세등, 영덕, 운산, 은광 스님이, 봉녕사 묘엄 스님으로부터 상일 스님이 각각 강택을 이었다. 이 가운데 승가대학원출신으로 1980-90년대 이후 출가한 영덕, 운산, 은광 스님 등 젊은 비구니 학생들에게 강택이 전해졌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현재 5곳서 600여명 수학

청암사 강원(강주 지형)은 1975년 현 강주인 지형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이 개설했다. 엄격한 경학 연마와 매일 간경, 좌선 등을 통해 선교계를 강조하고 있다. 120여명의 학인들이 김천 지역 봉사활동과 어린이 법회를 통해 신도 포교에도 열성적이다. 최근에는 육화당을 전면 개보수하

■비구니 강택의 역사

운문사강원 강주 명성 스님은 출가한지 5년만인 1958년 선암사 성능복문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았다. 스님은 "어느 날 노장을 통해 선교계를 강조하고 있다. 120여명의 학인들이 김천 지역 봉사활동과 어린이 법회를 통해 신도 포교에도 열성적이다. 최근에는 육화당을 전면 개보수하

Table with 2 columns: 강원 (School) and 학인현황 (Student Status). Rows include Donghaksa, Bongnyongsang, Unmunsa, Cheungamsa, and Samseon.

“대화·타협이 중요... 종단 발전에 힘 모을때”

조계종 종회 일부·총무원 대립 양상 불자들 우려

무대리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직영사찰법은 재산관리인의 해임사유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총무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직영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임사유인 직무태만, 직무수행능력 부족, 보고의무 태만 중 어느 항목에 의거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7일

"주지 인사는 종회와 종법에 따른 총무원장의 권한"이라며 조계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총무원과 대표적인 서울 도심사찰인 조계사 운영을 연계시키는 것이 불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전 재산관리인 지홍 스님과 의견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흔히 갖바위로 알려진 선본사의 경우 "기도하는 신도가 많은 사찰임에도 불구

하고 시설관리가 안돼 상좌스님을 보냈"고 말하고, 본문사의 경우 "미납 분담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 "조계사와 본문사의 경우 수석사 문종 스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의 최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많은 불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교계 관계자는 "올교 그를 떠나 지홍 스님과 의견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흔히 갖바위로 알려진 선본사의 경우 "기도하는 신도가 많은 사찰임에도 불구

어받은 종도대의자인 만큼 종회라고 하는 의견표출의 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선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게 하지 않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법장 스님은 보림회와 금강회의 지적에 대해 "오해가 있지만 지적을 고맙게 생각한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 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모임 역시 "총무원장스님이 총무행정. 한 교계 관계자는 "올교 그를 떠나 지홍 스님과 의견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흔히 갖바위로 알려진 선본사의 경우 "기도하는 신도가 많은 사찰임에도 불구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Advertisement for 'Sadaecheonwang Bokwon' (Sadaecheonwang Memorial) featuring a statue of the deity. Text describes the memorial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Advertisement for 'Tanheosnim Yuseong Gwang' (Tanheosnim Yuseong Gwang) CD set. Features a photo of a man and promotional text about the CD's content and price.